

1. (가)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 ②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 ③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 ④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 ⑤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식량을 저장하였다.

정답: ②

\* 구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

- 주먹도끼, 찌개 등의 뎀석기와 단양 수양개 유적지를 통해 구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구석기 시대 유적은 함북 웅기 굴포리, 경기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충북 단양 수양개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먹도끼, 찌개 등의 뎀석기를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돌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다가, 점차 쓰임새에 따라 여러 가지 뎀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짐승과 물고기를 잡아 먹었으며, 식물의 열매나 뿌리도 채취하여 먹었다. 또,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동굴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특히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에는 기둥 자리, 담 자리 및 불 뎀 자리가 남아 있어 불을 사용하여 난방과 음식을 익혀 먹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집터의 규모는 작은 것은 3, 4명, 큰 것은 10명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 ①, ⑤ 신석기인들은 빗살무늬토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저장하고,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의복을 지어 입었다.
- ③, ④ 청동기인들은 지배자(군장)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고, 농기구로는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간석기나,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2.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초기 국가의 제천 행사에 대해 알려 볼까요?
- (가) 은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나라의 결속을 다졌어요.
- (나) 은는 해마다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출것습니다.
- ① (가)-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있었다.
  - ② (가)-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을 거느렸다.
  - ③ (나)-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④ (나)-제가(諸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⑤ (가), (나)-도둑잡힌 자에게는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정답: ②

\* 초기국가 고구려와 삼한

(가) **고구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또, 고구려에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쪽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인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건국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화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고,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나) **삼한**: 마한,진한,변한으로 구성된 삼한에는 신지, 견지, 읍차, 부례와 같은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삼한은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과 가을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제천 행사 때에는 온 나라 사람이 모여서 날마다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겼다.

삼한 사회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 사회였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특히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달하여 일찍부터 저수지를 축조하였다(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 제천 의림제)

① 동예와 옥저는 읍락에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③ 동예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④ 부여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가(加)들이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⑤ 부여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간음한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는 등 매우 엄격하였다.

3. (가) 국가의 경제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수도에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 ②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 ③ 낙랑, 왜 등과 활발하게 교역하였다.
- ④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 ⑤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있었다.

정답: ③

\* (금관) 가야에 대하여

- 제시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끈 금관가야의 중심지이다,

-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 되었고 점진적인 사회 통합을 거쳐 2세기 이후 여러 정치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세기경에는 이들 사이의 통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김해의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부른다.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는 김수로에 의하여 건국 되었는데(42), 그 세력 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 걸쳤다.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문화가 발달하였고,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4세기 초부터 백제(근초고왕)와 신라의 팽창(내물왕)에 밀려 전기 가야 연맹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4세기 말~5세기 초에는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고 거의 몰락하여 가야의 중심 세력이 해체되고, 가야 지역은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축소되었다.

가야 연맹은 5세기 초에 크게 변하였다.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면서 김해,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부 지역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반면, 그 동안 낙후 지역이었던 북부 지역의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지의 세력은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산간 지대에서 그간 수도작(水稻作) 농경과 야철술을 배경으로 실력을 양성하였고, 5세기 후반에 고령 지방의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로 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이룩하였다. 6세기 초에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이후, 신라와 백제의 다툼 속에서 특히 한강 유역을 상실한 백제의 진출로 후기 가야 연맹은 분열하여 김해의 금관가야가 신라에 정복당하였고(532, 법흥왕), 가야의 남부 지역은 신라와 백제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결국,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하면서(562, 진흥왕) 가야 연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① 신라는 지증왕 때에 시장 감독 기구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509)

②, ④ 고구려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고, 고국천왕 때에 춘대추납의 빈민구제책인 진대법을 실시하였다(194).

⑤ 단궁, 과하마, 반어피는 동예의 특산물이다.

4.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전진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 불상과 경전을 보내왔다. 왕이 사신을 보내 사제하고 방물(仿物)을 바쳤다. 태학을 세우고 자제를 교육시켰다.

(나) 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도읍 한성을 점령하고, 그 왕 부여 경을 죽이고 남녀 8천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삼국사기」

- ①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 ②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 ③ 신라가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 ④ 고구려가 대방군을 축출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⑤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왕이 전사하였다.

정답: ②

\* 고구려의 불교 수용(372)과 백제 한성 점령(475) 사이의 역사적 사실

고구려는 4세기에 이르러 중원의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틈타 활발하게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미천왕(300~331) 때에 마지막 한(漢) 군현인 낙랑군(313), 대방군(314)을 완전히 몰아 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4세기 중·후반 고국원왕 때에 서북쪽의 전연(342)과 남쪽의 백제 근초고왕의 침략을 받아 평양성에서 국왕이 전사(371)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371~384)은 중국 북조 전진(순도 파견)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372) 이전의 다양한 신앙을 불교 중심으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어 태학을 설립(372)하여 인재를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373)하여 국가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소수림왕 때의 내정 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391~412,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 영락 사용)은 백제를 굴복시켜 한강 이북의 지역을 점령하고, 서북쪽의 거란과 선비족의 후연을 격파하여 오랜 숙원이던 요동 지방을 포함한 만주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동북쪽의 부여와 동쪽의 말갈을 굴복시켰다. 한편 노복(奴僕)이 되겠다고 맹세한 백제가 왜를 끌어들이 신라에 침입해오자, 신라 내물왕의 군사원조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5만을 보내어 왜를 격퇴하였다(400). 이로써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의 발전을 도우고,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연맹을 붕괴시키는 등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이어 장수왕(413~491)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427), 뒤이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475)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하여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③ 신라 법흥왕(514~540)은 병부와 상대등의 설치(531), 율령의 반포와 공복의 제정(520)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5. (가) 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원광에게 결사표를 짓게 하였다.
- ②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 ③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④ 집사부를 설치하고 장관을 중시라고 하였다.
- ⑤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정답: ③

\* 신라 진흥왕의 업적

- 한강 중상류 지역(단양)과 적성이라는 것을 통해 신라 진흥왕 임을 알 수 있다.

- 신라는 진흥왕(540~576) 때에 이르러 내부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면서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진흥왕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576),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흥왕은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562). 특히, 한강 유역을 장악함으로써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항해를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이후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관한 사실은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북한산, 창녕, 마운령, 황초령)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랑스런 역사를 후대에 알리기 위하여 거칠부를 시켜 역사서인 국사(545)를 편찬케 하였으나 전하지 않고 있다

① 진평왕(579~632) 때에는 진흥왕 때에 영토를 빼앗긴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에 대응하고자 중국 유학파 승려 원광(541~630)을 시켜, 수나라에 구원군을 요청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608년, 결사표).

②, ⑤ 신라는 지증왕(500~514) 때에 이르러 정치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정리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이사부 장군을 시켜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

④ 신라 진덕여왕(647~654) 때에 왕명을 받아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집사부(장관 초기에는 중시)를 설치하였다(651).

6.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②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 ③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④ 고구려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정답: ③

\* 백제-신라 연합군의 한강 유역 점령(551) 이후의 사건

백제 성왕(523~554)은 부왕인 무령왕(501~523) 대의 국력 신장을 발판삼아,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성왕은 중앙 관청(22부)과 지방 제도(5부 5방)를 정비하고, 불교를 진흥하였으며,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함과 아울러 일본에 노리사치계를 보내어 불교를 전하기도 하였다(552).

한편,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551년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신라-상류, 백제-하류), 곧 신라에게 하류 지역을 빼앗겼다(553). 이로써 나제 동맹은 완전 결렬되고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옥천)에서 전사하고 말았다(554).

- ① 신라 법흥왕(514~540)은 532년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 ② 고구려 장수왕(413~491)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며(427) 남진정책을 적극 펼쳤다.
- ④ 고구려 광개토 대왕(391~412)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 영락 사용하였다.
- ⑤ 백제는 침류왕 때에(384) 남조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 및 공인하였다.

7.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법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래와 별수(別帥) 두상과 부여 용은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왜국 군사를 만나 네 번 싸워서 모두 이기고 그들의 배 4백 척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오르고 바닷물은 붉은 빛을 띠었다.

-「삼국사기」-

612	645	660	668	675	698
(가)	(나)	(다)	(라)	(마)	
살수 대첩	안시성 전투	황산벌 전투	평양성 합락	매소성 전투	발해 건국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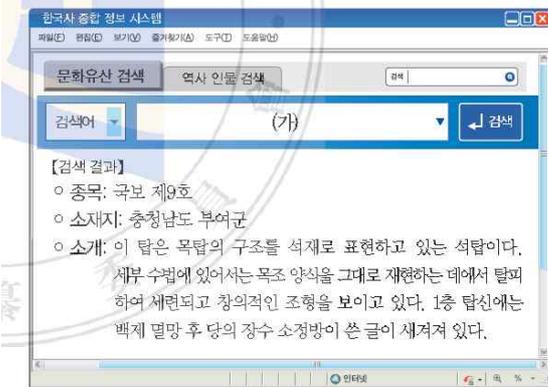
\* 백제 부흥운동과 백강 전투(663)

의자왕으로 인한 정치 질서의 문란과 지배층의 향락으로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한 백제는, 계백의 5천 결사대의 황산벌에서의 항쟁에도 불구하고 나·당 연합군에 의해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660).

그러나 각 지방의 저항 세력은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은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부흥 운동은 좌절되었다.

이 때,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1천 척 중 400여 척이 불태워지는 큰 패배를 당하여 쫓겨갔다(663).

8.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①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국보 35호): 통일신라기의 석탑으로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얹은 후 꼭대기에 상륜부를 얹어놓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의 형태를 하고 있다. 지대석 위에는 높직한 3단 받침이 있고 하층 기단의 면석 각면에는 탕주(撐柱)가 없으나 그 대신 3구씩의 안상(眼象)을 음각하고 그 안에 천인상(天人像)을 1좌씩 12구를 양각하였다. 상층 기단에는 우주(隅柱) 대신 연화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암수 2쌍의 사자를 지주(支柱) 삼아 네 귀에 배치하였다

② 불국사 3층 석탑(국보 21호): 8세기 중엽에 세워진 경주 불국사의 대웅전 영역은 묘법연화경(법화경)의 세계를 다보여래(과거불)를 상징하는 복잡하고 화려한 다보탑(국보 20호)과 기단이나 탑신에 아무런 조각이 없어 간소하고 날씬한 석가여래(역사적 불)를 상징하는 석가탑(불국사 3층 석탑, 국보 21호)으로 구현하였다.

③ 진전사지 3층 석탑(국보 122호): 전형적인 통일신라기의 3층 석탑이나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을 새긴 것으로 이름이 나있다. 진전사는 선종을 도입한(821) 도의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어 9세기 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경주 감은사지 3층 석탑(국보 112호): 2층의 기단에 사각형으로 쌓아올린 3층 석탑으로, 동·서 두 탑이 같은 규모와 구조이다. 많은 석재를 이용한 수법은 백제의 석탑과 같으나, 그것이 목조탑파를 충실히 모방한 것인데 반해 이 석탑의 조형수법은 기하학적으로 계산된 비율에 따른 것이다. 감은사는 682년(신문왕 2년)에 창건되었으므로 이 탑의 건립도 그 무렵으로 추정되는 오래되고 거대한 석탑으로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으로 이어졌다.

정답: ⑤

\*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국보 9호):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과 7세기 백제 시대의 대표적 석탑. 백제를 정벌한 당의 소정방에 의해 속칭 평제탑이라고 불리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목조탑 형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목조건물의 모습이 한층 간결해져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9.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나라 화엄종의 개조(開祖), (가)**



19세 때 경주 황복사로 출가하였으며, 당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화엄 사상을 공부하였다. 귀국한 후에는 낙산사와 부석사 등을 창건하였다.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지통과 표훈 등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 ① 화왕계를 지어 왕에게 조언하였다.
- ②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왕에게 건의하였다.
- ③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고승전을 남겼다.
- ④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강조하였다.
- ⑤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였다.

정답: ④

\* 의상(625~702)에 대하여

신라 진골 출신의 의상(625~702)은 당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귀국하여 신라의 화엄종을 창설하고 중국과 다른 독특한 화엄사상을 전개하였다(해동 화엄종). 즉,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낙산사,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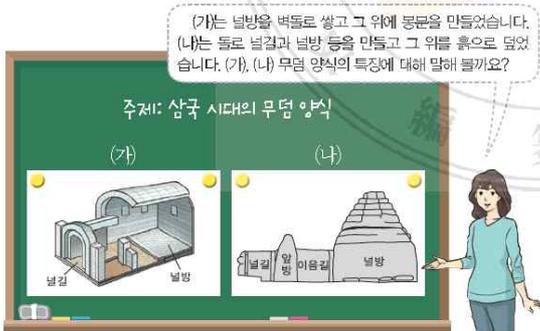
① 6두품 출신의 설총(655~?)은 유교 경전에 조예가 깊었고, 이두를 정리하여 한문 교육의 보급에 공헌하였고 신문왕에게 풍간(諷諫)의 뜻을 담은 화왕계(花王戒)를 지어 바쳤다.

② 선덕여왕 때 대국통인 자장(590~658)은 주변 9개 민족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황룡사 9층 목탑 건축을 건의했다(643). 종파는 계율종이다.

③ 고려 후기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1215)은 삼국 시대 이래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⑤ 원효(617~686)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는 '십문화쟁론'을 지었다.

10.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 보 기 —

ㄱ. (가) -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ㄴ. (가) - 무덤의 돌레돌에 12지 신상을 조각하였습니다.  
 ㄷ. (나) - 벽과 천장에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ㄹ. (나) - 도굴이 어려워 금관, 유리잔 등 많은 껌문거리가 출토되었습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벽돌식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는 초기에 주로 돌무지무덤을 만들었으나, 점차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어 갔다. 돌을 정밀하게 쌓아올린 돌무지무덤은 만주의 집안(지안) 일대에 1만 2000여 기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다듬은 돌을 계단식으로 7층까지 쌓아올린 장군총이 대표적이다.

굴식 돌방무덤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것이다. 천장은 대부분 모줄임 천장 구조이고 널방의 벽과 천장에는 무용도, 수렵도(무용총), 씨름도(각저총), 사신도(강서대묘, 쌍영총 등) 등과 같은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이런 무덤은 만주 집안,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에 널려 있다.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는데, 서울 석촌동에 일부가 남아 있다.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웅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墓誌 발견)이 유명하다. 사비 시기에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다. 또한 백제 돌방무덤과 벽돌무덤에도 벽과 천장에 사신도와 같은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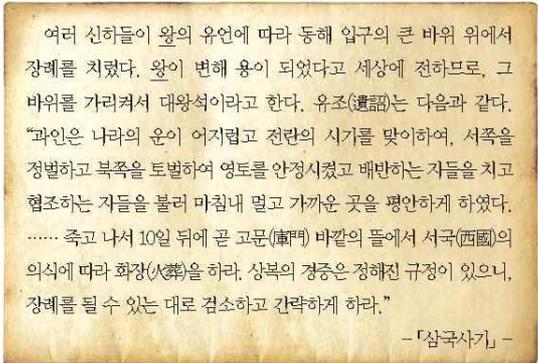
신라는 초기에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을 많이 만들었으며, 삼국 통일 직전에는 굴식 돌방무덤도 만들었다.

신라 경주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주로 5세기 전후로 왕권이 강화되는 마립간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껌문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널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금관, 유리잔 등 많은 껌문거리(부장품)가 그대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천마도(말 배가리계 그림)가 출토된 천마총과 출(出)자형 금관 출토로 유명한 황남대총, 서봉총, 금관총 등이 있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하였고, 고분 양식도 거대한 돌무지덧널 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봉토 주위를 돌레돌로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독특한 양식이 새롭게 나타났다.

11.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②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 ③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④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 ⑤ 나 · 당 전쟁에서 승리하여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정답: ⑤

\* 문무왕의 업적

- 자료는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수증릉(대왕암)을 지은 것에 관한 것이다.

- 무열왕(654~661) 김춘추는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로 진골로 격하된 배경 속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같은 진골이지만 멸망한 금관가야 출신의 김유신과 결탁하여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첫 왕이 되었다(654).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이 함락되어 그의 딸과 사위가 죽게 되자(642) 고구려와 동맹하여 백제를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감금당하고 탈출하여 나당동맹을 성사시켰다(648).

나당동맹군은 660년 백제를 멸망시켰으나 이듬해 무열왕이 죽고, 아들 문무왕(661~681)이 계승하여 고구려 멸망(668)과 나당전쟁 승리(676, 기벌포 전투 승리)를 통하여 삼국통일이 완성되었다.

신문왕(681~692)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 또, 문무 관리에게 관료 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① 성덕왕(702~737) 때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722). 이는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하고,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는 국유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연수유전답).

③ 진흥왕(540~562)은 대가야를(562) 멸망시켜 가야를 모두 차지하였다.

④ 원성왕(780~798) 때에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를 마련하였다(788). 이 제도는 골품 제도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하였지만, 관직 상한 제한을 극복하고자 하는 6두품의 지지와, 학문과 유학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12.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되었다.
- ②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 ③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 ④ 계루부 등 5부 출신 귀족이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 ⑤ 지방에서 호족들이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정답: ⑤

\* 장보고의 난이 있었던 신라 하대의 모습

통일 후 번영을 계속하던 신라는 7세기 후반부터 귀족들의 권력다툼에 휘말리게 되었다. 소수의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왕과 귀족 사이에, 그리고 귀족들 서로 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귀족들이 농장을 늘리고 자신의 군대를 키워 서로 다투었지만, 국가는 이를 통제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권력다툼은 해공왕 때 시작되었다.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귀족들의 다툼이 시작되어 결국 해공왕은 살해를 당하였다(대공의 난,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이로써 통일 직후 지속되던 무열왕계의 왕위 세습(654~780)이 끊어졌다(780년 선덕왕 즉위: 내물왕계). 이후 신라에서는 왕위다툼이 심해져서 150여 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바뀌는 큰 혼란이 일어나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8세기 후반 이후,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왕위 쟁탈전에서 탈락한 낙향 진골 귀족의 반란(예: 822년 응주 도독 김현창의 난)은 지방 세력(호족)들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케 하여(예: 846년 장보고의 난),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자연 재해가 잇따르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취가 뒤따랐다.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0세기로 들어오면서 지방에서 성장하던 견훤과 궁예는 신라 말의 혼란을 틈타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① 백제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② 신라 중대 신문왕(681~692)은 장인인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④ 고구려는 초기에 계루, 소노(연노), 절노, 순노, 관노의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13.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문**  
○○○○년 ○○월 ○○일

러시아 연해주에 크라스키노 성 유적에 대해 한·러 공동 발굴을 실시한 결과 37, 40, 41구역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연화문 외당 등이 출토되었고, 온돌이 확인되었다. 이번 발굴로 (가) 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다.



연화문 외당



정답: ③

\*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문화유산

발해는 도읍지를 중심으로 많은 무덤이 남아 있다. 이 중에서 정혜 공주묘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모줄임 천장 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닮았다. 이 곳에서 나온 돌사자상은 매우 힘차고 생동감이 있다. 정효 공주 묘에서는 묘지와 벽화가 발굴되었다. 무덤에서 나온 이런 유물은 발해의 높은 문화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궁궐 중에는 온돌 장치를 한 것도 발견되었다. 사찰은 높은 단 위에 금당을 짓고 그 좌우에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이 건물들을 회랑으로 연결하였다.

조각은 궁궐 터에서 발견되는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발해의 벽돌과 연꽃무늬 기와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을 띠고 있다. 상경에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석등은 발해 석조 미술의 대표로 꼽힌다.

발해에서도 불교가 장려됨에 따라 많은 불상이 제작되었다. 상경과 동경의 절터에서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불상도 발굴되었다. 이 불상은 흙을 구워 만든 것으로,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이불병좌상).

①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국보 119호):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고구려 불상.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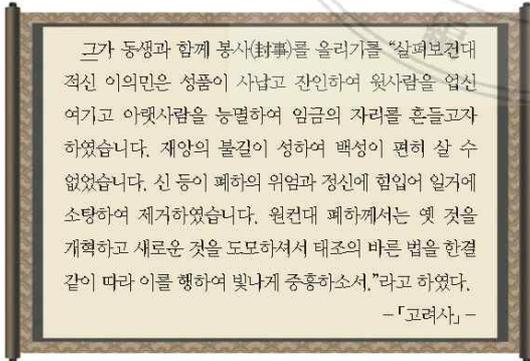
② 금동 대향로(국보 287호): 백제의 수도인 사비(부여)의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 도교적 이상향을 표현했으며, 백제의 높은 금속공예 기술을 볼 수 있다.

④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국보 57호): 신라 하대에 유행한 팔각원당형 승탑의 대표.

⑤ 장군총: 고구려 초기에 유행한 돌무지무덤 양식으로 만주의 집안(지안)에 소재하고 있다. 돌을 계단식으로 7층까지 쌓아올린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는 큰 무덤이다.

14. 밑줄 그은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을 장악하였다.
- ② 왕권을 제약하던 기구인 정방을 폐지하였다.
- ③ 시무 28조를 올려 지방관 파견을 건의하였다.
- ④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여 대몽 항쟁을 펼쳤다.
- ⑤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하였다.

정답: ①

\* 봉사 10조를 올린 최충헌

최충헌은 전임 집권자 이의민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자(1196~1219 집권), 무신 정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 개혁책을 제시하는 한편, 농민 항쟁의 진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사회 개혁책은 흐지부지되고, 그는 오히려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사병을 양성하여 권력 유지에 치중하였다.

최충헌은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1209)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 사병 기관인 도방을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였다. 도방은 이후의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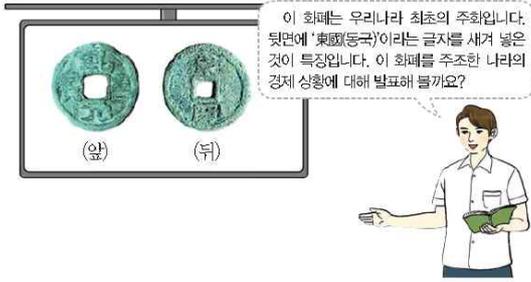
②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가 1225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며 왕권을 제약하던 정방은, 1298년 충렬왕 때에 폐지되었으나, 부활(충숙왕)과 폐지(충목왕)를 반복하다, 공민왕이 즉위와 함께 1352년 폐지하며 왕권을 강화하였다(1356년 다시 폐지). 공식적으로 정방이 폐지된 것은 이성계 일파의 위화도 회군 직후인 1389년(창왕 원년)에 상서사로 개칭되며 소멸되었다.

③ 6두품 출신 유학자 최승로(927~989)는 성종 때(982)에 시무 28조를 올려 지방관 파견을 건의하여 이듬해(983) 수용되었다(12목 설치)

④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어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1270), 무신 정권의 전위인 삼별초는 기득권 유지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승화후 온(溫)을 내세워 배중손(?~1271)의 지휘 하에 진도에서 대몽 항쟁을 시작하였다(1270~1273).

⑤ 고려 말 공민왕(1351~1374)은 무당파인 승려 신돈(?~1371)을 시켜 전민변정도감(1366)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에 의해 부당하게 겸병당한 토지와 강압에 의해 노비가 된 사람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 하였다.

15.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②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 ③ 3포가 개방되어 일본과의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 ④ 수도에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가 설치되었습니다.
- ⑤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록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습니다.

고려의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여 관청과 귀족이 주로 이용하게 하였고, 수도에는 경시서를 두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 등 대도시에는 관청의 수공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서적점, 약점과 술, 차 등을 파는 주점, 다점 등 관영 상점을 두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비정기적인 시장이 있어 도시 거주민이 일용품을 매탈 수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996)를 만들었으며, 숙종(1095~1105)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저포)를 사용하였다.

① 고려 말에 일부 남부 지방에 도입되었으나 가뭄의 우려 때문에 조선 전기에는 정부에서 금지하던 모내기법(이양법)은, 조선 후기에 크게 확산되어 농업방식을 크게 바꾸었다(광작의 유행).

② 조선 후기에는 해외 원산지 작물인 고구마, 감자 등이 전래되어 구황작물로 재배되었다.

③, ⑤ 조선 세종(1418~1450) 때에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1426)하여 무역을 허용하였고, 정초, 변호문 등을 시키어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인 농사직설(1429)을 간행하였다.

정답: ④

\*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건원중보)가 발행된 고려의 경제상

16.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조선 형평사 창립 대회가 개최되었다.
- ②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졌다.
- ③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④ 조선 후기 만상의 근거지로 청과의 무역이 전개되었다.
- ⑤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되었다.

정답: ②

\* 익산의 역사

2015년 7월 백제 역사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2곳이다.

2009년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을 보수·정비하는 과정에서 심주(心柱) 상면 중앙의 사리공에서 금제 사리호, 금제사리 봉안기 등 사리장엄을 발견되었다. 금제봉안기에는 시주자인 왕후가 백제 8대 귀족성 중 하나인 '사'씨의 딸로 기록돼 있어 무왕(600~641)의 부인으로 알려진 선화공주가 미륵사지를 조성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① 백정들은 3·1 운동 이후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여러 사회 운동 단체와 협력하며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신라는 나당전쟁 승리를 위해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여 문무왕 대에 고구려의 왕족 안승으로 하여금 금마저(전북 익산)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다(674). 그러나 신문왕 때에 신라에 회유된 안승에 반발하여 대문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토벌하며 보덕국을 없앴다(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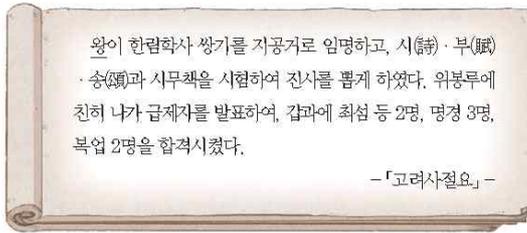
③ 1876년 1월 강화도에서 조약(조일수호조규)을 일본과 체결하며 근대적 문호 개방을 하게 되었다.

④ 조선 후기 대청무역을 주도한 것은 의주의 만상이다.

⑤ 1920년부터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여 국산품애용 운동인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17. 밑줄 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여진 정벌에 나서는 별무반의 군인
- ② 도병마사에서 회의하는 중추원 관리
- ③ 국자감에 7재의 개설을 명하는 국왕
- ④ 전시과에 따라 토지를 지급받는 관리
- ⑤ 노비안검법에 의해 양인으로 해방되는 노비

정답: ⑤

\* 과거제를 실시한 광종의 업적

고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은 혜종(943~945)과 정종(945~949) 때에는 왕권이 불안정하여 왕자들과 외척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났다(예: 왕규의 난).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949~975)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으며,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960).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다.

①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1104)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② 재추 합의기구인 도병마사는 근원이 양계의 병마사를 중앙에서 지휘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병마사 출현한 성종 8년(989) 이후에 나타난 기구이다.

③ 고려 중기에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며, 국자감의 관학 교육은 위축되자, 고려 예종(1105~1122)은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무학재를 포함한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 재단(양현고)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고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④ 고려의 관리에 대한 수조권 지급 토지인 전시과는 경종 원년(976)에 처음 실시되었다(시정 전시과).

18. (가)~(마)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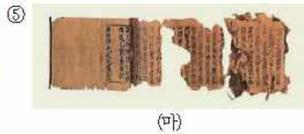
**□□ 박물관 문화 강좌**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려 시대의 문화'라는 주제로 교양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강좌 내용 ▣

1강: 규모가 거대하고 인체 비례가 불균형한 불상 ----- (가)  
 2강: 맑고 투명한 비취색의 자기 ----- (나)  
 3강: 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석탑 ----- (다)  
 4강: 배흘림기둥과 주심포 양식의 목조 건축물 ----- (라)  
 5강: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 ----- (마)

- 기간: ○○월 ○○일 ~ ○○일
-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박물관 강의실



정답: ⑤

\* 고려 시대의 문화유산들

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일명 은진 미륵, 보물 218호): 충남 논산 은진면 소재. 968년(광종 19)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시대 최대의 석불입상. 유난히 머리가 커 인체 비례가 불균형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다.

② 청자소문과형병(국보 94호): 맑고 투명한 비취색 자기인 고려 비색 청자의 대표. 참외 모양의 몸체에 꽃을 주둥이로 삼아 표현한 매우 귀족적인 작품으로 긴 목에 치마주름 모양의 높은 굽이 받치고 있는 단정하고 세련된 화병이다.

③ 경천사지 10층 석탑(국보 48호): 우리나라 최초의 대리석탑.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이어졌다. 탑의 1층 몸돌에 1348년(충목왕 4년)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 만들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④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18호): 경북 영주 소재. 1376년 중수된 주심포 양식 건물. 배흘림 기둥, 삼중으로 맵시 있게 겹쳐진 포작, 이중 서까래로 인한 지붕의 가벼운 곡선등이 이 건물의 특색이며, 전체적으로 장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국보 126호):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751)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 인쇄물이다.

19.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제국대장공주의 겁령구'였던 인후가 갑자기 재상이 되어 나라 전체에 권력을 행사하니, 원경이 인후의 권세에 기대고자 하여 아들을 인후의 딸에게 장가보냈다. 이때부터 인후의 일파가 되어 온갖 일들을 꾸며내어 나라에 해악이 되었다. .... 원경이 무략 장군 정동행중서성 도진무로 임명되어 금부(金符)를 찾다.

- 「고려사」 -

\* 겁령구: 원의 공주가 고려에 들어올 때 따라 온 시종

<보 기>

- ㄱ. 결혼도감을 통해 공녀가 징발되었다.
- ㄴ. 유교 사관에 입각한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 ㄷ.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 ㄹ.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원의 간섭기(1270~1351) 시기의 고려 사회 모습

- 원나라 공주 출신 왕비인 제국대장공주와 그의 사속인인 겁령구, 정동행성 등을 통해 원의 간섭기 임을 알 수 있다.

- 몽골과 강화한 이후, 고려는 두 차례 실시된 원의 일본 원정에 군대와 물자의 제공을 강요받았다. 또, 철령 이북에 쌍성총관부, 자비령 이북에 동녕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라는 원의 통치 기구가 설립되어 넓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여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고, 왕실의 호칭과 격이 부마국에 걸맞은 것으로 바뀌었다(폐하->전하, 태자->세자, ..조.종->충..왕). 아울러 관제도 개편(중서문하성+상서성->첨의부, 6부->4사, 중추원->밀직사)되고 격도 낮아졌다.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하여 내정 간섭 기구로 삼았고, 군사적으로는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하고 순마소(경찰 기능)를 통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한편, 원은 공녀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 갔으며(결혼도감 주관), 금, 은, 베를 비롯하여 인삼, 약재 등 특산물을 징발하여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특수 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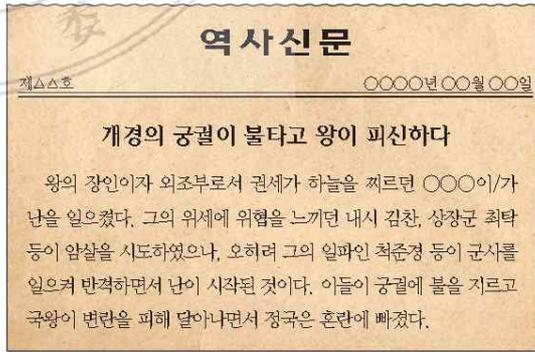
이러한 원의 내정 간섭으로 고려는 자주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원의 압력과 친원파의 입성책동으로 인해 정치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사회적으로도 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골풍(소주, 설령탕)이 유행하여 변발, 몽골식 복장(호복, 연지, 족두리, 장도), 몽골어(수라, ~치)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 우리나라 최초의 기전체 역사서인 삼국사기는 김부식에 의해 고려 중기에 편찬되었다(1145).

㉡ 망이·망소이 형제에 의해 일어난 공주 명학소의 난은, 고려 무신정권기(1170~1270) 초기에 일어났다(1176)

20.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강화도로 천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 ② 강감찬이 나성 축조를 건의한 의도를 분석한다.
- ③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한 이유를 알아본다.
- ④ 금의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한 인물에 대해 조사한다.
- ⑤ 공민왕이 개혁 정책을 추진한 시기의 국제 정세를 파악한다.

정답: ④

\* 이자겸의 난(1126)

고려 전기 최대의 문벌귀족인 경원 이씨 이자겸은 딸들을 예종과 인종의 왕비로 두어 최고의 권력자로 행세하다 국왕의 자리까지 넘보기에, 왕위 유지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이자겸의 반격을 받아 궁궐이 불타는 등 위기에 처했다. 이를 이자겸의 난이라 한다(1126).

그러나 얼마 후 인종은 이자겸의 부하인 척준경을 시켜 이자겸을 제거하였고, 척준경도 탄핵을 받고 축출됨으로써 이자겸 세력은 몰락하였다. 이자겸의 난은 중앙 지배층 사이의 분열을 드러냄으로써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몽골의 1차 침입(1231)과 강화 후, 1232년 최우 무신 정권은 수군이 약한 몽골과 항전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② 거란의 3차례 침입을 막아낸 후 현종 때에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개경 주위에 나성(본성 뒤에 성을 또 쌓음)을 쌓았고, 그 후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아 국경의 경비를 강화하였다(1033~1044).

③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1196) 뒤, 회유와 탄압으로 수탈받던 농민·천민 반란이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만적의 난에 의해 다시 점화되었다.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해방을 주장하였다(1198).

④ 동북 9성의 반환(1109) 이후 여진족은 그 후 더욱 세력을 키워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금을 건국하였으며, 거란(요)을 멸망시킨 뒤(1125)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해왔을 때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은 금과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1126).

⑤ 공민왕(1351~1374)은 중원 대륙이 한산동, 주원장(후일 명 태조) 등이 이끄는 홍건적의 난으로 원·명 교체기에 접어들자, 이를 이용하여 반원자주 정책을 펼쳐나갔다.

21.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처음에 그와 남은이 임금을 날마다 뵈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권고하고 진도(陣圖)를 익히게 하는 고로 그 급함이 이와 같았다. 이에 앞서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청하여 집에 들어가 있으니, 그와 남은이 조준의 집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 ①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하였다.
- ②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 ③ 황산 대첩을 승리로 이끌어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다.
- ④ 경제문감을 저술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 ⑤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정답: ④

\* 정도전(1342~1398)에 대하여

조선 왕조 개창의 1등 공신이며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인 삼봉 정도전(1342~1398)은 고려 말 공민왕 대에 이색을 중심으로 학문적 유대관계를 통해 교유해온 신진사대부들 중 하나로 신돈의 개혁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1383년 신흥 무인세력인 이성계와 만나 제휴하였고, 이후 이인임 권문세족 정권과 위화도회군 이후에는 최영 세력을 몰아내고 신진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고려왕조를 지속하려는 이색, 정몽주 등의 온건파 사대부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는 조준 등과 함께 과전법(1391)을 주도하고 온건파들을 제거하고 결국 역성혁명의 입장을 주도하며 조선 건국에 앞장섰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초창기의 문물 제도를 갖추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태조 때(1394) 교통과 국방의 중심지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도성을 쌓고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종묘, 사직, 관아, 학교, 시장, 도로 등을 건설하여 도읍의 기틀을 다졌는데 이 때 궁궐과 종묘의 위치 및 도성의 기지를 결정하고 궁·문의 모든 칭호를 정했다

또한 유교적 통치 규범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전의 편찬에 힘써 조선경국전(1394)과 경제문감(1395)을 편찬하였고,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고,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의 진리를 논파하고 배척을 주장한 불씨잡변(1394)을 통하여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그러나 명과의 갈등(표전문 사건의 당사자) 속에 남은(1354~1398) 등과 요동 정벌을 추진하며 세자 방석을 후원하다가, 1차 왕자의 난(1398)에서 이방원에 의해 처형되었다.

- ① 고려 말 안향에 의해 원으로부터 성리학이 처음 수용되었다(1290).
- ② 고려 말 충선왕은 원의 연경에 만권당(1314)을 세우고 이제현(1287~1367) 등의 성리학자들을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 ③ 이성계(1335~1408)은 황산 대첩(1380)에서 왜장 아지발도를 사살하여 승리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려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
- ⑤ 고려 말 최무선(1325~1395)이 질긴 노력을 하여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자, 정부는 화통도감을 설치하여(1377), 최무선을 중심으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고,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금강 하구) 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1380).

2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곳은 도동 서원으로 김굉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김굉필은 조의제문이 발미가 되어 일어난 사건 때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연산군 10년에 일어난 (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도 침형을 당했습니다.



- ①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 ② 윤임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③ 이조 전랑을 둘러싼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배경이 되었다.
- ④ 대비의 복상 문제가 봉당의 대립으로 확대되어 일어났다.
- ⑤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명호(名號) 문제로 인해 발생하였다.

정답: ①

\* 김굉필(사림)과 갑자사화(1504)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 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사족이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을 사림이라 부른다.

김종직(1431~1492)과 그의 문인 김굉필(1454~1504) 등이 성종 때에 중앙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한 사림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언관직(언론과 문한 담당)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였다.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성종을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훈구 대신과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림 세력의 분방한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무오사화(1498, 조의제문 사초 문제), 갑자사화(1504, 폐비 윤씨 사사 문제를)를 겪으면서 영남 사림의 대부분이 몰

락하였다. 연산군은 이후 언론을 극도로 탄압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단행하다가 결국 중종반정으로 쫓겨났다(1506).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김굉필의 문인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그 뒤 중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림을 등용하기도 하였으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형(소윤), 윤임(대윤) 등 외척간의 권력다툼에 휩쓸려 사림 세력은 윤임 일파와 함께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을사사화, 1545).

그러나 사림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통하여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나간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으나,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다(1575).

④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놓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두 차례의 예송(기해예송-1659, 갑인예송-1674)이 발생하였다.

⑤ 숙종 때의 서인에 의한 경신환국(1680)으로 축출된 남인은, 원자(장희빈 소생)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하였고, 송시열 등이 사사되었다(1689, 기사환국).

2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책은 1777년(정조 1)에 이진홍이 (가)의 사적(事蹟)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는 지방 이서(吏胥)층인 (가)의 기원과 형성 과정, 그리고 행적을 밝히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상소 등이 수록되었다.

연조귀감

- ① 신랑역천으로 분류되었다.
- ②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 ③ 고려 시대에는 화척이라 불렸다.
- ④ 수령을 보좌하며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 ⑤ 시전을 운영하며 관청의 수요품을 조달하였다.

- 조선은 향리가 향촌 사회에서 사실상의 지방관 역할을 하던 고려와는 달리, 중앙집권을 위하여 수령을 왕의 대리인으로 파견하여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부여하고 권한을 강화한 반면, 토착 세력인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으며, 문과 응시에 제한을 두어(수령의 허가) 신분 상승을 막았다.

① 고려, 조선에서는 양인 중에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랑역천이라 하였다. 조선에서는 칠반천역이 있는데, 수군, 조례(관청의 잡역 담당), 나장(형사 업무 담당), 일수(지방 고을 잡역), 봉수군(봉수 업무), 역졸(역에 근무), 조졸(조운 업무) 등 힘든 일에 종사하는 일급 부류이다.

② 천민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노비였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③ 조선 시대 백정은 세종 대에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양수척(버들고리를 만들어 파는 자), 화척(짐승을 잡는 자)들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들에게 농토를 주고 백정이란 칭호를 붙여 천인 취급을 받았다.

⑤ 도성의 상인인 시전 상인(양인 신분)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과 사상인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부여 받았다.

정답: ④

\* 조선 시대 향리에 대하여

연조귀감(1777): 조선 후기 정조 때에 향리 출신인 이진홍이 저술한 향리에 대한 역사서로, 향리의 기원·형성 과정 및 위업을 밝혀 향리와 양반이 처음에는 같은 신분이었음을 재인식시키고, 향리들의 신분상 지위 변화를 개진하려는 의도로 지어졌다.

24.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달의 인물】



**칼을 찬 선비 남명(南冥)**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로 호는 남명이다. 그는 경의(敬義)를 배움의 바탕이라 하면서 '경(敬)'과 '의(義)'를 새긴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한다. 성리학을 중시하면서도 천문·지리·의학·병학 등의 여러 분야에 능통하였다. 당대의 사람들은 그를 경상우도의 대표적인 학자로 칭송하였다.

- ①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 ②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 ③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하였다.
- ④ 성학집요를 저술하여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였다.
- ⑤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여 정인홍, 곽재우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정답: ⑤

\* '의'를 강조한 남명 소식(1501~1572)

조선 중기 성리학자. 사화를 경험하면서 훈척정치의 폐해를 직접 목격한 탓에 출사를 포기하고 평생을 산림처사로 자처하며 오로지 학문과 제자들 교육에만 힘썼다.

그의 사상은 노장적 요소도 다분히 엿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수기치인의 성리학적 토대 위에서 실천공행을 강조했으며, 실천적 의미를 더욱 부여하기 위해 경(敬)과 아울러 의(義)를 강조하였다. 즉 경의협지를 표방하여 경으로서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서 외부 사물을 처리해 나간다는 생활철학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그는 일상생활에서는 철저한 절제로 일관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당시의 사회현실과 정치적 모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판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정인홍, 곽재우의 복인으로 대표되는 그의 제자들은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의 위기 앞에 투철한 선비 정신을 보여주며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황의 경상좌도 학맥과 더불어 영남 유학의 두 봉우리를 이루었다(경상우도 학맥).

① 송시열(1607~1689)은 서인(노론)의 영수로 효종 때에 북벌을 주장하였다.

② 풍기 군수 주세붕(1495~1554)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1543).

③ 18세기 초에 정제두(1649~1736)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④ 성학집요에서 이이(1536~1584)는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학술 기관으로 경연을 권장하였다.
- ②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 ③ 재상들이 합의하여 국정을 총괄하였다.
- ④ 왕명의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 기관이었다.
- ⑤ 대사간을 수장으로 하여 간쟁을 담당하였다.

정답: ①

\* 언론 기관 **홍문관**

조선의 중앙 관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와 그 아래에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인 6조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3정승의 재상 등이 합의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는 중국의 최고 관부인 3성 6부와는 다른 우리의 독자적인 최고 관부로서, 고려 말의 도평의사사를 개편하여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실권은 약화되었다.

이.호.예.병.형.공조로 구성된 6조 중 문관과 무관의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이조와 병조의 전랑(정5품)과 좌랑(정6품)의 전랑(銓郎)은 벼슬은 낮지만 인사권을 갖는 선망의 요직이고, 특히 이조 전랑은 후임자 자천권도 있어 훗날 붕당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6조 아래에는 여러 관청이 소속되어 업무를 나누어 맡음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한편, 의정부와 6조의 고관이 중요 정책 회의에 참여하거나 경연에서 정책을 협의함으로써 각 관서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사헌부(주로 백관 규찰, 기강·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 서경·간쟁·봉박, 장관:대사헌) 사간원(주로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경연, 서경·간쟁·봉박, 장관:대사간), 홍문관(일명 옥당, 집현전 계승, 주로 왕의 자문 및 경연 강의, 경서·사적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 장관:대제학)의 3사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사헌부와 사간원은 대간(臺諫)이라 불렸는데, 임명된 관리의 신분·경력 등을 심의·승인하는 서경, 왕께 간언을 하는 간쟁,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 밖에, 왕명에 의해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춘추관,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 등이 있었다.

26. 다음 글이 쓰인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일본국 우선봉장 사야가 삼가 조선국 절도사께 글을 올립니다.  
본의 아니게 가토 기요마사의 우선봉장이 되어 3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왔습니다. …… 인의의 나라를 도저히 공격할 수 없어 저는 전의를 잃고 말았습니다. …… 다만 저의 소원은 이 나라 예의문물의 아름다움과 의관홍숙의 성함을 우러러보며 예의의 나라에서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 사야가, 강화서 -

- ①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 ② 국경 지역에 4군 6진이 개척되었다.
- ③ 사절 왕래를 위하여 북평관이 개설되었다.
- ④ 일본에 제한된 무역을 허용한 기유약조가 체결되었다.
- 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정답: ④

\* 임진왜란 이후의 역사적 사실(여진, 일본 외교)

- 보기의 자료는 임진왜란(1592~1598) 당시 귀순한 왜장 출신 장군 김충선(1571~1642)에 관한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들어선 일본의 도쿠가와(파병하지 않음) 에도 막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섬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했다.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사명대사)을 파견하여 일본과 강화하고 조선인 포로 7000여 명을 데려왔고(1607), 이어 1609년(광해군 원년)에는 대마도주와 기유약조(세견선 20척, 세사미 100석 이내)를 체결하여 국교가 재개되며 부산에 왜관이 설치되었다(1609년 두모포->1678년 초량진)

①, ② 세종 대에 왜구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하여 이종무를 시키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고(1419), 또한 여진족이 살던 북방 지역을 개척하였다. 최윤덕 장군을 시켜 압록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여 북서 4군을 설치하고(1433), 김종서 장군을 시켜 두만강 하류 일대까지 확보하여 동북 6진을 설치하였다(1449).

③ 조선 초기에 여진 사절단을 대접하는 곳으로 서울 동대문 인근에 북평관(야인관)을 설치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여진의 침략이 심해지며 없어졌다.

⑤ 중종 때 3포 왜란(1510, 지변사 재상 소집)이 일어나자 임시기구로 비변사를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였다(1517년 설치).

27.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3점]

도성 안의 도랑이 막혀 물길이 넘쳐서 많은 여염집이 물에 잠겨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므로, 준천사(漕川司)를 설치하여 돌을 캐어다 높이 쌓고 도랑을 쳐서 잘 흘러가게 하였다. 이로 인해 마을 집들이 잠기지 않아서 모두 편히 지냈다.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하정(下情)을 통하게 하였다.

- ①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 ②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③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였다.
- ④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 ⑤ 청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정답: ④

\* 청계천을 준설한 영조의 업적

영조(1724~1776)는 정치적 조정력을 통해 어느 붕당이든 간에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영조는 먼저, 붕당을 만드는 자는 영원히 정치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노론의 장기 집권에서 오는 폐단을 막고자 노론의 강경파를 몰아내고 소론과 남인의 온건파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영조는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양의 성균관에 붕당간의 다툼을 금하는 탕평비를 세웠다(1742).

탕평책의 실시로 소론과 남인이 진출하게 되면서 노론의 독주가 어느 정도 견제되었으며, 붕당에 관계 없이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왕권도 강화되어갔다.

영조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먼저,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역법(균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줌)을 시행하고 국가 재정을 개혁하였다. 또, 형벌 제도를 완화하여 지나친 형벌이나 악형을 금지하고, 신문고를 부활하여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속대전', '속오례의', '동국문헌비고' 등을 편찬하여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서울 도성과 관련해서는 준천사를 설립(1760)하여 청계천을 준설(1760~1773)하여 수해를 방지코자 하였다.

① 공납의 개혁인 대동법은 광해군 때에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어(1608),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 숙종 대에 함경·평안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되었다(1708).

② 정조(1776~1800)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1793)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③ 광해군(1608~1623)은 대외적으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1619년 강홍립 후금 투항).

⑤ 북벌을 준비하던 효종(1649~1659)은, 만주 북부의 헤이룽강 부근에 러시아가 침략해 오자 청이 이를 물리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을 때에, 두 차례(1654, 1658)에 걸쳐 조총 부대를 출병시켜 큰 전과를 올렸다. 이를 나선 정벌이라고 한다.

2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문화유산 카드**

- 종목: 국보 제87호
-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 소개: 정면 7칸, 측면 5칸의 다포계 중층 팔각지붕 건물이다. 현존하는 중층의 불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내부 공간은 층의 구분 없이 통층(通層)으로 구성되어 웅장한 느낌을 준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1702년(숙종 28)에 중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무량사 극락전



마곡사 대웅보전

정답: ③

\* 조선 후기 건축물 화엄사 각황전

17세기의 건축으로는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국보 62호, 1635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 1702년, 현존 중층 불전 중 가장 큰 규모),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 1605년, 국내 유일의 5층 목조 건물)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④ 무량사 극락전 (보물 356호): 충남 부여 소재. 인조 때 중건된 건물. 외관상 중층으로 보이나,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

⑤ 마곡사 대웅보전 (보물 801호) 충남 공주 소재. 17세기 건물. 중층 다포계 팔작 지붕.

29.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서양 오랑캐가 강화에 쳐들어왔는데 적의 형세가 더욱 커졌다. 순무사 이경하가 중군 이용희와 천총 양현수를 선발하여 통진에 진을 치고 주둔하게 하였다. …… 10월 초하룻날 밤에 손돌목을 건너 경족산성으로 들어가 용거하였다. 초삼일에 적이 성 아래에 가까이 쳐들어오니 양현수는 함을 내어 싸움을 독촉하여 한꺼번에 총포를 쏘아댔다. 적의 우두머리가 먼저 죽고 다른 오랑캐들도 쓰러져 죽자, 시체들을 수레에 싣고 달아났다.

- ① 운요호 사건의 결과를 알아본다.
- ②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영향을 파악한다.
- ③ 외교장각 도서의 약탈 과정을 조사한다.
- ④ 조·미 수호통상 조약의 내용을 검색한다.
- ⑤ 광성보 전투에서 어재연 장군의 활약을 살펴본다.

정답: ③

\* 병인양요(1866.9)

흥선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하였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청이 천주교를 탄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하여 흥선 대원군은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866년부터 6년 동안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병인박해). 이로 인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 여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는 바로 이 병인박해 때의 자국의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

1866년 9월 프랑스군은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승선시키고 조선을 침략하여 한강을 봉쇄하였다. 그 중의 한 부대는 갑곶진에 상륙한 뒤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점령하여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탈해 갔다.

한성군이 지휘하는 군대는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모두 퇴각하였다. 이 사건을 병인양요라고 한다(1866).

①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포함외교인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다(1875).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

② 병인양요 후 오페르트를 비롯한 서양인들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1868).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서양인들을 배척하는 기운이 더욱 거세어졌다.

④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체결된 근대 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은 거중 조정 조항(1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5조) 등 유리한 조항이 들어있으나, 기본적으로 치외법권(4조), 최혜국 대우(14조)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⑤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8)을 빌미로 미국이 쳐들어 온 신미양요에서 어재연 등이 이끄는 부대는 광성보에서 미군을 막아 내었다(1871).

30. 다음 전시회에 전시될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1점]



정답: ①

\* 조선 전기의 회화 ‘고사관수도’

조선 전기인 15세기 그림은 도화서에 소속된 화원의 그림과 관료이자 문인인 선비의 그림으로 나눌 수 있다.

화원 출신인 안견은 역대 화가들의 기법을 체득하여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몽유도원도’는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하여 구현한 걸작이다.

문인 화가인 강희안은 시적 정서가 흐르는 낭만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의 대표작인 ‘고사관수도’는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로 인물의 내면세계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① 조선 전기 강희안(1417~1464)의 ‘고사관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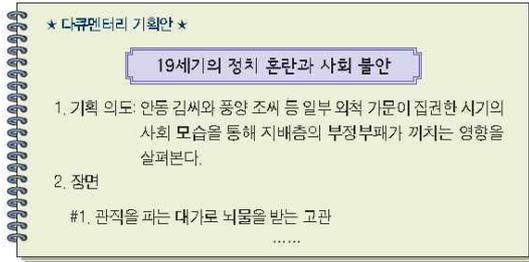
② 조선 후기 정선(1676~1759)의 진경산수화 ‘금강전도’

③ 조선 후기 강세황(1713~1791)의 ‘영통동구도’(서양식 원근법 사용)

④ 조선 후기 신윤복(1758~?)의 풍속화 ‘단오도’

⑤ 조선 후기 김정희(1786~1856)의 문인화 ‘세한도’

31. 다음 다류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농민 봉기의 진상을 조사하는 안핵사
- ② 환곡의 부담으로 마을을 떠나는 농민
- ③ 왕조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읽는 양반
- ④ 임궽정이 이끄는 도적떼에 가담하는 백성
- ⑤ 삼정이정청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관료

정답: ④

\* 세도정치기(1800~1863)의 모습

정조의 탕평 정치로 말미암아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결과적으로 세도정치기의 빌미가 되었다. 정조가 죽은 후 3대 (순조, 헌종, 철종)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소수의 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세도정치기(1800~1863)에는 왕권이 약화된 것은 물론 봉당정치와 관련된 탕평파와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도 없어지고, 중앙 정치를 주도하던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권력 구조에서도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래의 관리는 언론 활동 같은 정치적 기능을 거의 잃은 채 행정 실무만 맡게 되었다.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세도정치 하에서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며 관직이 매매되는 등 비리가 만연하였으며, 탐관오리들의 부당한 조세 수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즉 수령 자리가 상품화되며 삼정(전정.군정.환곡)의 3가지 세금 행정의 문란으로 극도에 달하였는데, 특히 환곡의 폐단이 심하였다.

①, ⑤ 진주민란(1862) 당시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아 삼정이정청(1862)이 설립되어 이정청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정과 전정은 옛 제도를 기본으로 그 폐단만을 고치며, 환곡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파환귀결'을 방법으로 내놓았다. 삼정이정청은 <삼정이정절목>을 책으로 내면서 철폐되고, 그 뒤 삼정 업무는 비변사에서 관장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못되었다.

③ 조선 후기에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유교적 명분론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비기,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 말세의 도래, 왕조의 교체, 변란의 예고 등 근거없는 낭설이 횡행하여 민심을 혼란시켰다. 정감록은 세도정치기에 널리 유행한 비기였다

④ 16세기 들어 수취체제가 문란해지고, 특히 명종 대(1545~1567)에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의 권세와 탐욕에 맞물려 방납의 폐단, 군포 징수의 과다함으로 인한 수취제도가 극도로 문란해지므로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 정부로 바치는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예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궽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1562년 처형됨).

32.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미 문벌에 따라 사람을 가용하니, 사람이면 모두 오장(五臟)과 칠규(七竅)가 있는데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양반이나 중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군보(軍保)의 천역(錢役)을 즐겨 지려 하겠는가? 실 한 가닥이나 쌀 한 톨을 남부하더라도 역명을 붙이니 사람들이 반드시 부끄럽게 여긴다.  
- 「우서(迂書)」 -

- ①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 ②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 ③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 ④ 북학의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 ⑤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의를 제작하였다.

정답: ①

\* 중상적 실학자 선구자 유수원

18세기 후반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가 나타났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용후생 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한다.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는 18세기 전반의 유수원(1694~1755)이었다. 그는 <우서>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민화를 주장하였다.

②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1762~1836)은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을 쌓을 때(1794~1796)에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③ 19세기에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1894)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이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4가지로 구분하여 치료하는 체질 의학 이론으로, 오늘날까지도 한의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④ 중상적 실학자인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특히 우물물 비유를 통하여 적절한 소비를 강조하였다.

⑤ 북학파 중상적 실학자 홍대용(1731~1783)은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기술의 혁신과 문벌 제도의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과학 연구에 힘써(사설 천문대, 혼천의 제작) <의산문답>을 저술하여 김석문과 함께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지전설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33. (가)에 들어갈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청에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 ② 5군영이 2영으로 개편되었다.
- ③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 ④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 ⑤ 일본 공사관 경비병의 주둔을 인정한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답: ⑤

\* 임오군란(1882.6)의 결과

개항 후 일본 상인의 대량 수입으로 점차 쌀이 부족해지는데다가, 때마침 1882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하층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져 갔다.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하여 구식 군인(무위영, 장어영)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였다. 심지어 민씨 일파 등 집권층의 부패로 구식 군인에게 13개월 만에 월급으로 지급한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 여기에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에 불만을 품었던 구식 군인들은 마침내 선혜청을 습격하며 임오군란을 일으켰다(1882.6).

구식 군인들은 흥선 대원군을 찾아가 지지를 요청했으며, 정부 고관들의 집을 부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 와중에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이 죽었다.

그 후 서울의 하층민들이 가세하여 세력이 더욱 커지자, 구식 군인들은 왕궁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 등 고위 관리들을 처단하였다. 군인들이 궁궐에까지 침입하자 민비는 종적을 감췄고(장호원 피신)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겼다.

그러나 민씨 일파로부터 군대 파견을 요청 받은 청은 일본의 무력 개입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군대를 출동시켜 군란을 진압했으며, 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해 갔다.

또한 청은 군대를 주둔시키며,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고문 파견: 마건창, 밀렌도르프)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여 양화진을 통한 한성개관권과 내지통상권을 얻어 도성의 시장과 개항장 밖 내륙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군란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굴복한 정부는 재물포 조약(1882.8)을 체결하여 사과 사절단의 파견, 주모자 처벌, 배상금 지불,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 등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①, ②, ④ 강화도 조약(1876) 이후 고종은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1880.12) 그 아래에 12사를 두어 외교, 통상, 재정, 군사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2군영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신설하였다.

또한 외국 문물을 견문토록 일본에는 수신사(1차: 1876)와 조사시찰단(1881)을 청에는 영선사(1881), 미국에는 보빙사(1883)를 보내었다.

③ 러·일 전쟁(1904~1905) 중 일제는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고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앉히고, 내정간섭을 심화하였다.

34. (가)~(다)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지금 국론이 두 가지 주장으로 맞서 있습니다. 서양의 적을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쪽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의 적과 화친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적국 쪽 사람의 주장입니다. 전자를 따르면 나라 안의 전통이 보전되고, 후자를 따르면 인류가 금수의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나)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양 오락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강화가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교가 다시 들어와 사악한 기운이 온 나라를 덮게 될 것입니다.

(다)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잘 모르던 나라입니다. .... 만일 그들이 우리나라의 허점을 알고서 우리가 힘이 약한 것을 업신여겨 따르기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고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대하겠습니까?

- ① (가) - 이항로와 기정진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 ② (가) -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 ③ (나) -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반대하였다.
- ④ (나) - 단발령과 을미사변을 계기로 제기되었다.
- ⑤ (다) - 조선책략의 유포로 인해 일어났다.

정답: ④

\* 위정척사운동의 시대적 변천

(가) 1860년대: 천주교가 유포되고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거세어지자 유생들은 외국과의 교역에 의한 국내 산업의 피해, 천주교의 확산에 따른 미풍양속의 파괴 등을 들며 통상 반대론을 내세웠다. 병인양요(1866)가 일어나자 기정진, 이항로 등은 서양의 무력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척화주전론(서양과 화친을 배척하고 싸울 것을 주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주장은 유생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으며 흥선 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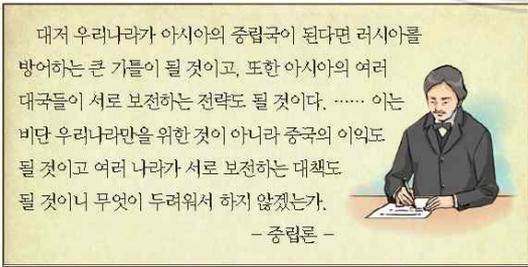
(나) 1870년대: 일본이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자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은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개항 반대론을 주장하였다. 일본이 서양에게 이미 문호를 개방하였으므로 서양 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는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강화도 조약(1876.1) 체결에 반대하였다.

(다) 1880년대: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책략'을 유포하고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려 하자 유생들은 집단 상소를 올려 반발하였다.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은 '만인소'를 올려 '조선책략(러시아를 막기 위한 미.일과의 연대)'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상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강원도 유생 홍재학은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까지 규탄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④ 1890년대 이후: 1890년대 이후에는 을미사변과 단발령 실시에 항거하여 대대적으로 유인석(제천), 이소응(춘천) 등이 의병(을미의병, 1895~1896)을 일으키며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

35. 다음 글이 쓰인 배경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제1차 영·일 동맹이 체결되었다.
- ②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하였다.
- ③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 ④ 영국군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정답: ④

\* 거문도 사건과 한반도 중립화론

갑신정변(1884.12) 이후 청·일본·러시아·영국 등이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면서 국제적 긴장이 높아졌다.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는 대한 해협의 문호에 위치한 섬으로 한·일 양국의 해상 통로는 물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의 요충지로도 손색이 없는 천연의 요새였다. 영국은 거문도를 해밀턴 항이라 부르며 영국기를 게양하고 포대를 구축하며 수뢰까지 설치하였다.

이에 조선은 영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청도 러시아와 일본이 이를 핑계로 조선에 파병할 것을 염려하여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러시아는 영국군이 철수하더라도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영국군은 1887년에 거문도에서 물러났다.

거문도 사건 직전 열강들의 대립으로 한반도가 국제 분쟁에 휩싸일 조짐이 보이자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한반도 중립화를 조선에 건의하였다. 한편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유길준(1856~1914)도 조선이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변국들의 비협조로 이루어지 않았다.

① 의화단 난(1899~1901) 진압 이후 러시아의 만주 진출을 저지하려는 영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1902년 1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②, ③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조약(1895.4.17)을 체결하여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러시아·독일·프랑스의 삼국 간섭(1895.4.23)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며 일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⑤ 을미사변(1895.10)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수병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고(아관 파천, 1896.2), 개화파 정부는 무너졌다. 이후 고종은 단발령 철회, 의병 해산 권고조치 등을 단행하였다.

36. 밑줄 그은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점]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전개한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농민군은 정부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안을 거듭 제시하였습니다.

- ① 탐관오리를 징계하여 쫓아낼 것
- ② 국가의 모든 재정을 호조에서 관할할 것
- ③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할 것
- ④ 죄인 외의 친족에게 연좌율을 일체 적용하지 말 것
- ⑤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동학농민군의 폐정 개혁 12개조>

1. 동학도와 정부는 원한을 씻고 모든 행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징벌한다.
5.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신분제 폐지 요구).
6.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감을 없앤다.
7.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모두 폐지한다(재정의 일원화로 연결).
9.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과거제의 문제점 제기).
10. 왜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한다.

② 호조로의 재정 일원화는 갑신정변(1884.12)의 개혁정강 14조 중 하나이다.

③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2차 갑오개혁 때인 흥범 14조(1895.1-양)의 내용이다.

④ 연좌제 금지는 1차 갑오개혁(1894.6-음) 때의 개혁안 중 하나이다.

⑤ 독립협회와 관민공동회가 상주한 현의 6조(1898.10) 중 하나이다(자주국권 강조).

정답: ①

\* 동학농민운동과 폐정개혁안(1894.6)

37.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공공의 의견으로 <가> 을/를 발기하여 영은문 유지에 독립문을 새로이 세우고 모화관을 새로 고쳐 독립관이라 하여 옛날의 치욕을 씻고 후인의 표준을 만들고자 함이요, 그 부근의 땅에 독립 공원을 이루어 그 문과 관을 보관하고자 하니 성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지라, 돌아보건대, 그 공역이 커서 큰 비용이 될 것이니 합치치 않으면 성취하기를 기약치 못할 것이요, 이에 알리니 밝게 헤아려 보조금을 뜻에 따라 보내고, 본회 회원에 참가할 뜻이 있으면 그를 나타내 주기를 바라오.

<보 기>

- ㄱ.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하였다.
- ㄴ.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하였다.
- ㄷ. 공화정체의 근대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 ㄹ. 민중 계몽을 위해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독립문 건설을 주도한 독립협회

아관 파천(1896.2)으로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고, 열강의 이권침탈이 심해지자,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하나였던 서재필은 중추원 고문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1896.4), 독립협회(1896.7)를 설립하였으며,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웁(1896~1897) 자주독립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러시아의 간섭과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독립 협회는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고(1897.2), 자주 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 선언 상소문(1898.2)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1차: 1898.3)를 열어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여, 러시아의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한·러 은행을 폐

쇄하였다.

독립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시켜, 광범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는 단체로 발전하였다(자강개혁). 또, 독립협회는 자주 국권(이권 수호), 자유 민권(신체의 자유, 의회 설립과 국민 참정권 추진)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1898.10)를 결의하고 고종은 건의문을 받아들여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하였다(1898.11).

이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될 단계에 이르게 되었으나 독립협회의 활동은 의회의 설립과 서구식 입헌 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대립하였다(공화제 모함). 독립협회는 보수 세력이 동원한 황국협회의 방해를 받았고, 고종이 동원한 군대에 의해 결국 3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1898.12).

㉠ 국민의 모금으로 나라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시작되어, 대한자강회 등의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결성된 국채보상기성회(김성희, 유문상 등)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로까지 확산되었다.

㉡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 단체 신민회(1907~1911)가 가장 일찍 공화정체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38.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려고 기도하고, 조선 본토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토지를 사들이고 촌락을 세워 새 영토로 삼고, 다수의 청년 동지들을 모집하고 파견하여 한인 단체를 일으키고,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무관 학교를 설립하여 문무를 겸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독립 전쟁을 일으켜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 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 ③ 농촌 계몽을 위해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
- ⑤ 계몽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태극 서관을 설립하였다.

정답: ⑤

\* 독립기지를 개척한 신민회

통감부의 탄압으로 정치활동이 어려워지자 비밀 결사인 신민회가 결성되었다(1907). 각 계각층이 참여하면서 800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한 신민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에 바탕을 둔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민회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를 세워 문화 활동과 민족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 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국권 피탈 직후 회원들 중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그러나 1911년 105인 사건(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이 날조되어 신민회 회원과 관련이 있는 안악사건으로 확대되어 105인이 기소된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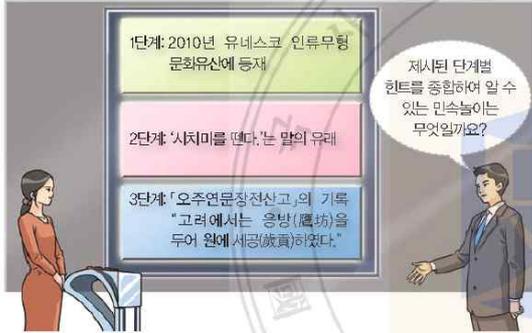
① 한국인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인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1923)를 중심으로 '한민족 1천만이 한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와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③ 1920년대 후반부터 궁핍한 농촌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 아래, 조선일보(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브나로드운동) 등의 언론사를 중심으로 1930년대 초 농촌 계몽 운동이 전개되었다.

④ 입헌 정치 체제의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헌정 연구회(1905~1906)를 계승한 대한자강회(1906~1907)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를 간행하면서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39.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매사냥                      ② 윷놀이                      ③ 강강술래
- ④ 줄다리기                    ⑤ 남사당놀이

정답: ①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매사냥

- 원의 간섭기 동안에 매(鷹:응)를 잡아 받치던 기구인 응방을 통해 매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무형유산>

-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2001.5)
- 판소리 (2003.11)
- 강릉 단오제 (2005.11)
- 강강술래, 남사당,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2009.9)
- 가곡, 대목장, 매사냥 (2010.11)
-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 (2011.11)
- 아리랑 (2012.12)
- 김장 문화 (2013.12)
- 농악(2014.11)
- 줄다리기(2015.12)

② 윷놀이도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2014년도 부터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40. 일제가 다음 대책을 마련한 배경으로 옳은 것은? [1점]

생각건대, 장래의 운동은 작년 봄 행해진 만세 소요 같은 어련에 장난 같은 것은 아닐 것이고, 근거(根底) 있고 실력 있는 조직적 운동일 것이라는 점을 오늘날 미리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 우리들은 어떠한 방책으로 이 경향을 이용하여, 오히려 일선 병합(日鮮併合)의 대정신, 대이상인 일선 동화(日鮮同化)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방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위력을 동반한 문화 운동 이것뿐이다.

- 사이토 마코토 -

- 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 ②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 ③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 ⑤ 정인보,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조선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답: ②

\* 일제 문화통치의 배경 3.1 운동

- 작년 봄의 만세 소요(3.1운동), 일선병합, 일선동화, 문화운동 방침을 통해서 문화통치 임을 알 수 있다.

- 강점 이후 일제의 무단 통치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민족 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제창된 민족 자결주의와, 도쿄에서 일어난 2·8 독립 선언에 고무되어 독립 운동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 대표(종교 지도자) 33인의 이름으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국내외에 독립을 선언하였다(1919. 3.1).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 운동은 고종의 국장(인산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군중들과 학생, 종교인, 상인, 노동자가 참가하면서 점차 지방 도시로 확산되었고, 뒤이어 전국 각지의 농촌으로 파급되었다.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차츰 면사무소, 헌병 주재소, 동양 척식 주식 회사 등 식민 통치 기관, 친일 지주 등을 습격하는

무력적인 저항 운동으로 바뀌어 갔다. 또, 3·1 운동은 국외로도 확산되어 만주와 연해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국외 동포에 의해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만세 시위를 탄압하였다(유관순 순국, 제암리 교회 학살).

3·1 운동은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 운동으로서, 일제의 통치 방침을 유화적 문화통치로 바꾸게 하였고,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즉,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외 항일무장투쟁, 사회주의와 여성 운동 등 다방면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에 큰 자극이 되었다.

① 광주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간의 충돌 사건을 일본 경찰이 편파적으로 처리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은 광주학생항일 운동(1929.11)이다.

③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사회주의자와 학생들이 추진된 만세시위 운동은 6.10 만세 운동(1926.6)이다.

④ 1920년대 중반 타협론자들의 자치 운동을 경계하여,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좌우합작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 신간회(1927~1931)이다.

⑤ 정인보·문일평·안재홍 등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1934년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전개한 민족문화 수호운동. 과거의 민족주의 역사학이 국수적·낭만적이었음을 비판하고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사상과 우리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41.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군사장(허위)은 미리 준비를 신속히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함에 한 방울의 물도 셀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전군에 명령을 전하여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군하였다. 대군은 긴 뱀의 형세로 천천히 전진하게 하고, 3백 명을 인솔하고 선두에 서서 동대문 밖 삼십 리 되는 곳에 나아가 전군이 모이기를 기다려 일거에 서울을 공격하여 들어가기로 계획하였다. 전군이 모여드는 시기가 어긋나고 일본군이 갑자기 진격하는지라, 여러 시간을 격렬히 사격하다가 후원군이 이르지 않으므로 그대로 퇴진하였더라.

1894	1899	1904	1905	1907	1910
(가)	(나)	(다)	(라)	(마)	
갑오 개혁	대한국 국제 반포	한·일 의정서	을사늑약	정미 7조약	국권 피탈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⑤

\* 서울진공작전이 추진된 정미의병

1907년 7월 일제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문제 삼아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한·일 신탁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정부의 차관과 각 도의 지방관에 일본인을 등용하였으며, 부속 각서를 통해 군대를 강제 해산하였다.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의 항전은 더욱 강렬하게 불붙었다. 서울 시위대를 비롯한 각지의 해산 부대들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교전을 벌인 후 의병에 가담하였다. 해산 군인의 합류로 의병 부대는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의병들의 국권 회복 투쟁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정미 의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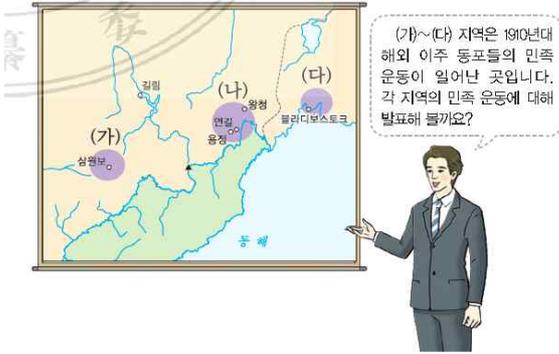
정미 의병은 유생과 농민, 해산 군인뿐 아니라 노동자, 상인, 교사와 학생 등 전 계층이 참여한 전국적인 항일 구국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의병 전쟁이 확산되자 의병 간에 연합 전선이 모색되었다. 이에 유생 의병장들이 중심이 되어 13도 연합 의병 부대(13도 창의군)를 결성하였다.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1만여 명의 의병은 이인영을 총대장, 허위를 군사장으로 추대하고 1908년 1월, 서울 진공 작전에 나섰다.

그러나 총대장 이인영이 아버지의 별세로 낙향하며 지휘권을 군사장 허위에게 양도하였고, 한때 허위가 이끄는 선발대가 동대문 밖 12km 지점까지 진격했으나 우세한 화력을 지닌 일본군에 의해 가로막히고 실패하였다.

42.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해조신문, 권업신문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 ② (가)-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를 세웠습니다.
- ③ (나)-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결성하였습니다.
- ④ (나)-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⑤ (다)-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숙, 명동 학교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정답: ②

\*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의 민족운동 역사

(가) 서간도(또는 남만주): 신민회 회원들이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특히 신흥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백서농장을 건설하고 독립군을 편성, 훈련하였다. 경학사는 뒤에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하면서 독립군(서로군정서)을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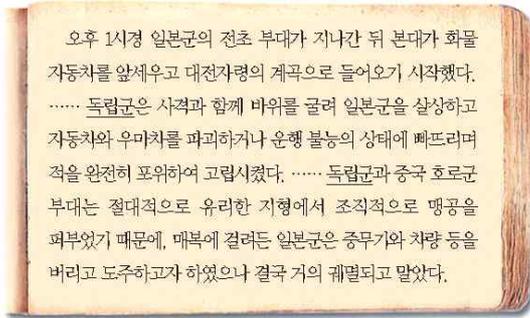
(나) 북간도: 용정촌, 명동촌 등 많은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 단체를 만들어 동포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간민회는 민족 교육과 한인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북간도 한인 사회의 형성과 단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서전서숙(1906, 이상설), 명동 학교(1908, 김약연) 등 민족 학교를 세워 철저한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북간도로 거점을 옮긴 대중교에서도 중광단이란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고 사관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 이후 북로군정서로 발전하였다.

(다) 연해주(신한촌): 1860년 이후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러시아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교민과 언론(1908년 해조신문 창간)이 형성되었고,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 의군과 성명회가 설립되었고, 1911년에는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 조직인 권업회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권업신문과 학교,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군정기관으로 이상설, 이동휘 등은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활동을 준비하였으며, 러시아혁명(1917) 직후 전로한족회 중앙 총회가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는 3·1 운동 직후 임시정부 형태의 대한국민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④ 1908년에 장인환, 전명운이 1차 한일협약에 의해 외교 고문으로 왔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처단하는 의거를 계기로 동포 사회에 애국심이 고조되자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주 지역 한인 단체를 통합한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었다(1910).

43. 밑줄 그은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지청천이 총사령관으로 부대를 지휘하였다.
- ② 자유시 참변으로 인하여 세력이 약화되었다.
- ③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었다.
- ④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 ⑤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정답: ①

\* 한중연합작전을 실시한 한국독립군

일제가 만주 사변(1931)을 일으키고, 이듬해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1932)하여 만주 일대를 장악하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독립군은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고조된 중국군과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서간도 지역에서 국민부를 모태로 1929년 설립된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조선 혁명군은 1934년 양세봉이 살해당하고, 간부들이 체포, 처형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북만주에서 1931년 결성된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1888~1957)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연합하여 토일군(구국군 또는 호로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후 전리품 문제와 만주에서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중국군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김구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 정부에 합류하였다.

②, ③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활약하던 북간도 지역의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의 제 독립군들은 그해 말의 간도참변으로 인하여 소련의 지원을 믿고 만.소 접경지역인 밀산부에서 모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고(1920.12, 총재 서일), 이듬해 연해주 자유시로 근거지를 옮겨갔으나 독립군의 지휘권을 놓고 이르쿠츠파와 상해파 공산당 간의 갈등 속에 자유시 참변(1921년 6월, 소련군에 의해 무장해제되는 과정에 다수가 참살됨)을 겪었다.

④ 의열단 출신이 김원봉이 주도하여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중국 관내 첫 무장부대로 조선 의용대가 창설되었다(1938.10).

⑤ 임정 산하 한국 광복군은 미국과 미국전략정보국(OSS)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정진군, 1945.3), 일제의 다소 이른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44. 밑줄 그은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울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잠은 최초의 악수  
 - 운동주 -



- ① 토월회가 발족되면서 신극 운동이 일어났다.
- ② 이육사가 잡지 문장을 통해 절정을 발표하였다.
- ③ 계몽적 성격의 창가인 경부철도가 만들어졌다.
- ④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처음 개봉되었다.
- ⑤ 문화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신경향파가 등장하였다.

정답: ②

\* 민족말살기의 문화

- 중·일 전쟁 발발(1937) 이후라는 것을 통해 민족말살기 임을 알 수 있다.

한일합방 이전 1900년대의 문학의 특징은 신소설, 신체시, 창가, 신극, 외국문학 번역의 특징이 있다. 특히 서양식 악곡에 맞춘 창가가 유행하면서 '경부철도가(1908)' 같은 계몽적 성격의 노래와 애국가, 독립가, 권학가 등이 애창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1908년 극장 월각사에서 이인직의 '은세계'가 공연되며 신극운동이 시작되었다.

3·1 운동 이후인 1920년대의 문화계 동향은 동인지, 잡지 간행, 사실주의·사회주의 문학(신경향파) 등의 특색이 있다. 서양 문예사조의 영향을 받아 창조(1919), 폐허(1920), 백조(1920) 등의 동인지와 여러 잡지가 간행되며 다양한 문학 활동이 전개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순을 적극 비판하는 프로 문학(신경향파)이 등장하여 카프(KAPE)를 결성하였다(1925).

연극에서는 1923년 박승희, 김기진 등이 중심이 되어 극단 '토월회'를 설립하고 신파극을 넘어 신극 운동을 일으켰으며, 영화에서는 1926년 나운규의 아리랑이 제작·상영되면서 한국 영화는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아리랑은 항일 의식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로는 일제 탄압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며 순수 문학을 지향하기도 했으나, 중일전쟁(1937) 이후 최남선, 이광수 등 대부분의 문인들이 일제의 협박과 강요를 피할 수 없어 일제의 인적동원 찬양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육사(1904~1944)와 운동주 등은 문학으로 일제에 저항하였다. 이육사는 잡지 문장을 통해 '절정'(1940)을 발표하여 가혹한 일제의 통치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유고시 '광야'를 통해서도 남성다운 스케일로 초인의 도래를 염원하였다.

운동주(1917~1945)는 암울한 민족의 현실을 기독교적인 자아성찰과 희생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고시 '서시(序詩)'가 유명하다.

45.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제1차 세계 대전이 일본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하여 쌀값이 폭등하고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 그로 인해 일본 각지에서 쌀 폭동이 일어났고, 그 대책으로 일제는 자국의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충당하기 위하여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나) 조선 노동 총동맹을 노동과 농민으로 분리하려는 의견이 있어 각지 세포 단체에 그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 결과 분리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이 각각 조직되었다.

- ① 조선 농지령이 공포되었다.
- ②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 ③ 암태도 소작 쟁의가 일어났다.
- ④ 함경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다.
-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정답: ③

\* 산미증식계획 실시(1920)와 조선노동총동맹 분리(1927) 사이 시기의 역사적 사실

- 1910년대 말, 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빠르게 성장하던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급속한 공업화로 인한 농업 부문 취약으로 생긴 일본 국내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 증식 계획(1920~1934)을 실시하였다.

- 노동자 농민의 공동 조직인 조선 노동 총동맹(1924)은 1927년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되며,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모두 전국적 조직으로 커지며 쟁의는 더욱 확산되었다.

① 일제는 1930년대 들어 소작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키 위해 관제농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1932~1940)을 전개하고,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 등을 통해 지주의 소작권 제한을 정부가 관리·규제하며 소작농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무마하며 지주들을 관치로 통제하려 하였다.

② 일제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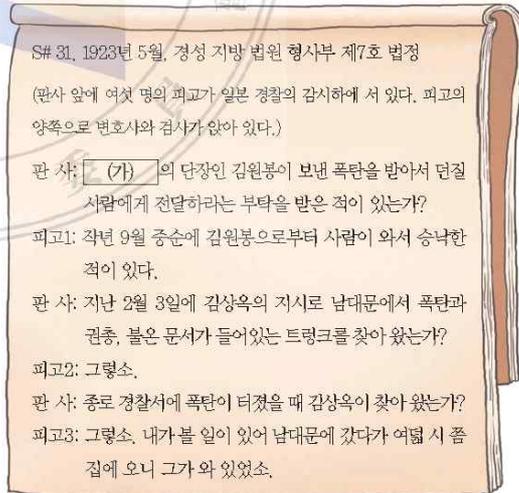
③ 1923년의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 소작 쟁의(암태 소작회 주도)는 한국인 지주와 일본 경찰에 맞서 1년간 싸워 소작료 인하를 관철 시킨 소작쟁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④ 개항(1876) 직후부터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사들여 일본으로 가져가면서 곡물 값이 크게 올랐고, 흉년으로 곡물이 크게 부족해지자, 1889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1883)에 따라 1개월 전에 외교 담당 관청에 통고하고 방곡령을 실시하였다.

⑤ 일제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토지 회사나 한국으로 건너오는 일본인에게 쌀 값으로 넘겨주어, 일본인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46.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 ②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 ③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단체이다.
- ④ 일제가 꾸며낸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 ⑤ 단원인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던졌다.

정답: ①

\* 김상옥 열사가 활동한 의열단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항일 무력독립운동 단체로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이끌었다. 당시 만주와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들이 미온적이고 온건하다고 본 의열단은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테러라는 과격한 방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해나기로 했다.

이는 신채호가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1923년 1월에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일명 의열단 선언)에 잘 나타나있다. 여기서 신채호는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문화주의·외교론·준비론 등의 입장을 비판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독립노선을 제시하였다. 신채호는 일제의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폭력적 민중혁명에 의한 일제의 타도라

는 전술을 내걸었다.

이에 따른 김상옥(1923,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김익상(1921,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나석주(1926, 동.척과 식산은행 폭탄 투척) 등의 의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은 이러한 개인 의거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1925년 몸소 중국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하였다. 이 학교에 포진된 공산주의 교수진의 영향을 받아 점차 김원봉과 의열단 지도부는 이후 노선을 바꿔 조선혁명간부학교(1932)를 세워 훈련시키고, 정당 조직(후일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과 군사 조직(후일 1938년 조선 의용대 결성) 형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②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밀행정조직망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을 이용하였다.

③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 1912년 조직한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으고,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며 대한제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복벽주의를 추구하였다.

④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 단체 신민회(1907~1911)는 국내에서 문화·경제적 실력양성 운동을 전개하며 점차 국외 독립기지 건설 등 군사적 실력양성을 꾀하였으나,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⑤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1932년 이봉창(일왕 폭탄 투척), 윤봉길의 의거(상해 홍구 공원 폭탄 투척)를 이루어내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47.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귀하

귀하는 한국 정부가 월남 정부로부터 월남에 대한 한국 전투 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하였다고 본인에게 통고하였습니다. 귀하는 또한 한국 정부가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는 대로 1개 연대 전투 부대를 4월에, 1개 사단 병력을 7월에 각각 도착하게 하는 방식으로, 월남 정부에서 요청받은 원조를 월남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군사 협조

- (1)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에 걸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 (2)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파월 추가 병력에 따르는 모든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

- ①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③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 ⑤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월남 파병을 한 1960년대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상황

- 보기의 자료는 미국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증파에 따른 한국군의 현대화와 군수.경비 지원 및 차관 제공을 골자로 브라운 각서이다(1966.3)

- 1960년대 박정희 정권기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기(1962~1971)에는 한·일 협정(1965) 체결의 대가로 들어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1965~1973)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 ⑤ 1990년대에 들어서 김영삼 정권(1993~1998) 때에는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1993),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는(1996)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

③ 노무현 정권(2003~2008) 때에는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미국과도 2007년 5월에 체결하였다(일부 분야 한정. 재협상 후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때에 발효).

④ 1950년대에 제헌국회와 이승만 정부(1948~1960)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1949.6)하여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1950~1957).

정답: ①

48.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6·25 전쟁의 기록

(가) 스트리틀 해군 제독의 지휘 아래 8개국 26척의 함정 등 대규모 선단이 집결하였다. 새벽 5시부터 상륙 부대가 배 20척에 나누어 타고 인천 상륙을 감행하였다.	(나) 북한군의 진격로를 차단하기 위해 한강 인도교와 한강 철교가 폭파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한강 이북에 있던 각 부대의 퇴로와 서울 시민들의 피난길이 막혔다.
(다) 중국군의 이른바 신형 공세로 인해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빼앗기고 평택-삼척선으로 후퇴하여 그곳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라) 유엔군 사령관 리차워드는 소련의 제의를 받아들여 북한과 중국에 휴전 회담을 제안하였다. 이것이 수용되어 개성에서 제1차 휴전 회담이 열렸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가) - (라) - (다)  
 ⑤ (다) - (가) - (나) - (라)

정답: ③

\* 6.25 전쟁의 전개과정

대한민국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는 출범 초기에 좌익 게릴라 활동, 실업과 물가 폭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였다. 더욱이 미군이 철수하고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선언(1950.1)이 나오는 등 국제 정세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 하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운 우세한 전력으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정부 철수 과정에서 한강철교 폭파)에서 한 뒤 파죽지세로 남하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여 (7.7) 16개국의 연합군이 참전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7.14).

국군과 유엔군은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했는데, 8월에 이르러 마산에서 낙동강을 따라 왜관을 거쳐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유엔군은 우세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공세를 낙동강 전선에서 저지하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으며,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하여 10월 말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10월부터 압록강을 건너 참전한 중국군의 대공세에 밀려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여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 평택까지 밀렸던 국군과 유엔군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5월 중순경에는 38선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이후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의 제안에 따라 미·소 양국은 휴전 회담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과 중국군 및 북한군은 1951년 7월부터 휴전 회담을 개최하여 2년여 간 협의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휴전에 반대하여 정전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전 협정 체결 전에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53.6.18.).

결국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비무장 지대 설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49.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4.19 시민혁명(1960)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항의 시위(마산의 김주열 학생 희생)를 원인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며 4.19 시민혁명이 발발하였다. 4월 25일 교수들의 시위가 있자 4월 26일 이승만은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였고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허정 과도정부는 부정선거를 계획한 정부 각료와 자유당 간부를 구속하였다. 국회는 6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7월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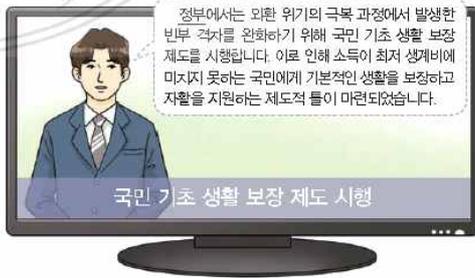
㉠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사망사건과 4·13 호헌조치(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유치 등을 빌미로 당시 대통령 간선제 고수 및 개헌 논의 금지)를 계기로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 전.노 신군부는 12.12 군사정변(1979)으로 군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으며,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 등을 동원하여 잔혹하게 진압하며 진압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0. 밑줄 그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성사시켰다.
- ② 통일의 3대 원칙을 명시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③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을 실현하였다.
- ④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⑤ 남북한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 기본 합의를 교환하였다.

정답: ④

\*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김대중 정부(1998.2~2003.2)의 통일 노력

김영삼 정권 말의 한보 사태를 계기로 국제 단기 자본이 이탈하면서 생긴 1997년 말의 외환위기(IMF구제금융)를 금모으기 운동 등의 국민의 자발적 헌신과 산업 구조조정,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고통 분담 정책 및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조기(2001) 상환할 수 있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에도 힘을 써, 기존의 4대 보험 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2000)를 새로 도입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펼쳐 금강산 관광 사업(1998)이 시작되며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고, 그 결과 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2000)을 이끌어내며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상봉 등이 이루어졌고, 2002년에는 일본과 월드컵을 공동개최하여 한국의 이름을 드높였다.

①, 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따라 첫 집권한 노태우 정부(1988~1993)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1990), 중국(1992)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유엔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1991.8)하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한이 상호 상대방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등을 채택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② 박정희 정부 때인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③ 전두환 정부 때인 1985년 9월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